

# 茶山の 握手說에 관한 연구

임 영 자 · 순 남 숙\*

세종대학교 교수 ·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 A Study on Woosu Theory of Tasan Chung, Yak-yong

Young-Ja Lim · Nham-Sook Soon\*

Dept. of Fashion Design, Professor, Se-Jong Univ.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Se-Jong Univ.\*

### ABSTRACT

Woosu is the last process in the preparation of the deceased for burial. There are two hypotheses on the purpose of Woosu. One is that it is to cover hands. The other is that it connects both arms of the body. The pattern of Woosu is 1 **cheok** 2 **chon** in length and 5 **chon** in width. The length is divided into 3 parts equally with 4 **chon**. And then, it will be cutted 1 **chon** both sides of the middle part in Woosu. So, the width of middle part becomes 3 **chon**.

Regarding the string used in Woosu, two applications have been hypothesised. One is that each string is at both sides, the other is that each string is at 4 edges respectively. Also, there are two hypotheses about number of strings in Woosu. One is that total number of Woosu is one. The other is that the total number of Woosu is two. During th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it is acknowledged that Sagye Kim, Jang-Saeng insisted that string of Woosu is at one by one at both arms and hands respectively to be useful to cover hands of the body.

But again the great scholar Tasan Chung, Yak-yong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on the explanatory notes and annotations of Sasangrye which are quoted by Sagye Kim, Jang-Saeng. He insisted that the purposes of Woosu is to connect both arms using one string. Therefore, I will explain the intrinsic nature of Woosu by researching Tasan Chung, Yak-yong's Woosu theory.

Key Word : 우수(woosu), 염습(preparation of the deceased for burial), 루중방촌(lujungbangchon), 다산(tasan)

## I. 序 論

握手는 襲衾의 절차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이는 襲具이다. 屬纊을 하여 죽음을 확인하고 復을 하여 死者의 還生을 懇求하는 初終의 절차가 지나면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 死신을 거두는 襲衾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 襲衾의 절차에서 屍身을 沐浴시키고 單衫과 單袴를 입힌 후 袷袴, 버선, 腰帶를 한다. 그리고 3稱<sup>1)</sup> 즉 裹衣·中衣·上服의 소매를 하나로 꿰어 놓았다가 한번에 입힌 다음 飯衾을 하고 瑣, 幘目, 掩을 한다. 신을 신기고 신의 끈으로 양발을 묶은 다음 大帶를 하고 握手를 한다. 그리고 이불을 덮음으로써 襲衾의 절차가 끝난다<sup>2)</sup>.

이처럼 握手가 襲衾의 가장 마지막에 쓰이는 것임에는 대부분 禮書의 내용이 같다. 그러나 “握手가 무엇인가”, “握手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몇 개를 쓰며 그 형태는 어떠한가” 라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다른 說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朝鮮時代に 이르러 沙溪의 說인 “握手는 2개를 쓰며 끈은 각각 두 개씩 있어 손을 싸는 것”으로 정착되었으나 그에 대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沙溪와 다른 握手說을 주장한 대표적인 學者 中喪禮에 관해서 방대한 저술을 남긴 茶山 丁若鏞은 당시 握手가 두개 쓰이던 것에 대해서 “握手는 양 손을 묶기 위한 것으로 한 개를 쓰는 것이 古禮에 맞는 것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sup>3)</sup>”고 하였으며 握手의 쓰임과 형태등에 대해서 자세한 고증을 하였다.

본 연구자는 조선시대의 대부분 禮書에서 두 개를 쓰고 있는 握手 制度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茶山の 喪禮관계 저술 중 대표적인 《喪禮四箋》<sup>4)</sup>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여 握手說을 고찰하고 각기 다른 握手說의 根據와 握手의 本質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자료로 《상례사전》외에 《상례비요》, 《사례편람》을 비롯한 조선의 禮書와 《儀禮注疏》,

《朱子家禮》를 비롯한 중국의 예서를 사용하였다.

## II. 本 論

### 1. 握手의 定義

握手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왜 필요한가.

握手의 기능에 관한 설명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賈公彥 - 이 옷을 握라고 이름하는 것은 그것이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握手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쥐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sup>5)</sup>.

② 開元禮 - 손의 옷이다<sup>6)</sup>.

③ 郝敬 - 비단을 竹筩과 같이 꿰매 屍身의 양손을 감추는 것이다<sup>7)</sup>.

④ 萬斯大 - 握手의 제도는 등글어 竹筩과 같다. 손을 양단으로 넣어 마주 잡는데 그 마주 잡은 곳이 넓게 되어 있어 두손을 수용할 수 있다<sup>8)</sup>.

⑤ 朱子와 沙溪 - 握手는 비단을 사용하며 길이 尺2寸이고 넓이는 5寸이다. 손을 두며 양단 하각에 끈이 있다. 이로써 손을 싼다<sup>9)</sup>.

⑥ 劉熙釋名 - 握手는 屍身의 손에 착용하는 물건으로써 가운데로 그것을 잡게 한다<sup>10)</sup>.

⑦ 茶山 - 양손을 연결하여 서로 떨어지고 비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sup>11)</sup>.

즉 握手는 손에 있는 것으로 “손을 싸기 위한 것”이라는 說과 “양손을 묶기 위한 것”이라는 說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握手說의 근거는 모두 《儀禮》의 〈士喪禮〉와 〈士喪記〉이다. 그 근거가 같으면서도 다른 說이 나온 것은 經典에 대한 解釋, 그리고 그 注와 疏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握手가 “손을 싸는 것”이라는 說의 근거는 《士喪禮》의 握手에 대한 내용 “握手用玄纁 袞”와 “牢中旁寸”이다. 이것을 注와 疏에서 “握手는 玄帛으로 만들고 열은 붉은 색으로 안을 대며 손을 싸는

것이다. 그리고 형태가 “牢中旁寸”인 것은 “손을 싸기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握手의 끈을 묶는 방법도 오른손과 왼손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2개의 握手를 양손에 각각 설치하여 손을 싸게 된 것이다.

그러나 茶山은 여기에서 “握手用玄纁” 다음의 글자가 “褻”가 아니고 “褻”라고 보았다. 茶山은 이 글자를 “褻”로 봄으로 인해 “握手用玄纁褻”는 握手의 색과 材料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였고 “握手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設握乃連擊” 즉 握手를 설치하고 이에 팔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握手의 握은 纁 또는 纁과도 통한다<sup>12)</sup>. 이 纁는 第韻에 의하면 “우”라고 읽고 “喪禮에 있어서 손을 묶는 것<sup>13)</sup>”이라고 하였으며 또 周禮巾車에 의하면 “纁이 있으면 덮개가 없다<sup>14)</sup>”고 하여 握은 덮는다는 뜻과 잡아서 지지한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握手를 하는 目的은 손을 가리거나 덮고 양팔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신은 시간이 지나면 뒤틀리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始死의 과정에서 收屍를 한다. 襲송의 절차에서 신을 신기고 握手를 하는 이유는 신의 끈으로 두 발을 묶고 握手로는 두 팔을 연결하여 두 팔이 떨어지고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握手의 목적은 신의 끈으로 양팔을 연결하는 것과 같이 握手를 설치하여 양팔을 연결하여 시신이 비틀리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본다.

## 2. 握手의 형태

握手의 형태에 관한 기록이 있는 《儀禮注疏》를 보면 “握手는 赤黑色 비단으로 만들고 안은 열은 붉은 색으로 만든다. 길이는 尺二寸이고 넓이는 五寸이며 길이를 三等分한 가운데 부분 四寸은 양쪽에서 一寸씩 각아 三寸이 되게 한다. 솜을 두며 끈을 단다”<sup>15)</sup>고 하였는데 握手의 형태를 결정짓는 문구는 ‘牢中旁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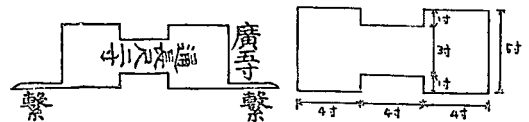
《士喪禮》注에서 “牢는 樓라고 읽고 樓는 握手의 가운데를 조금 작게하여 손을 편안하게 한 것<sup>16)</sup>”이라고 하였고 今文에는 “樓”는 “纁”라고 하였다. 賈公彥은 纁中이란 가운데가 잘룩한 것<sup>17)</sup>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握手의 넓이는 五寸인데 가운데를 양쪽에서 1寸씩 각으면 넓이가 3寸이 된다. 그리고 길이 尺 2寸을 三等分하면 4寸이 되므로 握手의 가운데 4寸은 넓이가 3寸이고 양쪽의 8寸은 넓이가 5寸이 된다. 《喪禮備要》, 《四禮便覽》, 《文公家禮儀節》의 握手圖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출토되고 있는 握手의 형태도 대체로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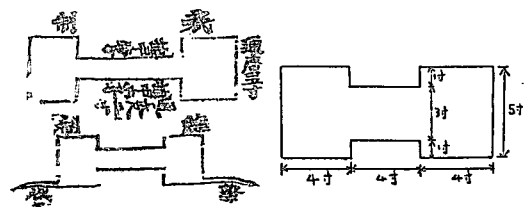
또 다른 견해로 郝敬과 萬斯大는 握手의 형태가 “竹筩과 같다”고 하였는데 萬斯大는 “握手의 제도는 竹筩과 같아서 兩端으로 손을 넣어 손이 겹쳐지는 부분은 넓어야 하므로 牢中은 牢籠이다”라고 하여 牢中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文公家禮儀節》에서는 “牢中旁寸”을 《儀禮》의 注疏를 인용하여 “가운데가 잘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握手圖(그림 1-3)에서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 끈이 4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茶山의 “牢中旁寸”에 대한 見解는 注나 疏와 마찬가지로 中央을 가장자리로부터 1寸씩 각아 중앙부분이 잘룩한 형태라는데는 일치하지만 그 잘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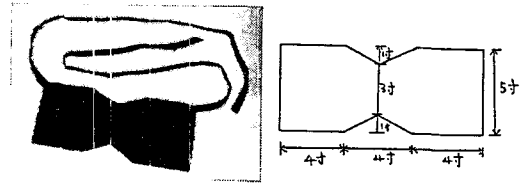
(그림 1-1) 四禮便覽의 握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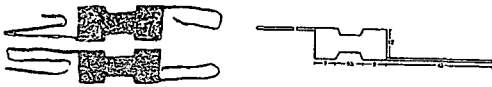
(그림 1-2) 喪禮備要的 握手圖



(그림 1-3) 文公家禮儀節의 握手圖



(그림 1-5) 茶山の 喪儀節要와 喪具訂을 근거로 한 握手圖(연구자 재현품)



(그림 1-4) 君守公(1530-1580)의 握手(한국복식17호, 1999)

부분의 형태가 삼각형<sup>18)</sup>이라고 함으로써 茶山의 또 다른 특징이 되고 있다.(그림 1-5)

握手은 몇 개를 쓰며 끈은 몇 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표 1 참조)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으나 沙溪에 이르러 握手 두개에 끈은 각각의 握手 兩端에 각각 1개씩 달려 있는 것으로 정착되었다(그림 1-2참조). 하지만 沙溪가 근거로 하고 있는 《家禮》와 《儀禮》의 〈士喪禮〉注와 疏에 문

제가 있음으로 해서 沙溪의 握手說은 끊임없는 논쟁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握手의 재료로는 문헌에서는 적흑색 비단에 안은 열은 붉은 색이지만 慎終錄<sup>19)</sup>과 출토품<sup>20)</sup>에는 주로 貢緞을 썼으며 색에 있어서도 흑색과 홍색, 흑색과 남색, 자적색과 남색등 다양하다(표 1).

끈의 위치와 수에 대해 沙溪와 陶庵은 握手의 끈은 양단 하각에 각각 1개씩 있으며 길이는 한쪽은 尺5寸내지 6寸이고 한쪽은 3尺<sup>21)</sup>이라고 하였다. 退溪는 握手를 2개 쓰며 끈이 네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있다고 하여 握手를 두 개 쓰는 것은 沙溪와 같으나 끈을 네 모서리에 모두 뚫으로써 손을 싸기에

<표 1> 握手의 형태

출 처	형 태	갯수	끈의 수	재 료	비 고
儀禮의 士喪禮	長: 尺2寸, 廣: 5寸 牢中旁寸	2	右1 左2	玄纁 帛	
朱子家禮	長: 尺2寸, 廣: 5寸 牢中旁寸			玄纁 帛	
朱子家禮注	長: 尺2寸, 廣: 5寸 牢中旁寸	2	左右各2	玄纁 帛	
文公家禮儀節	長: 尺2寸, 廣: 5寸	2	左右各4	玄纁 帛	
喪禮備要	長: 尺2寸, 廣: 5寸 牢中旁寸	2	左右各2	玄纁 帛	
四禮便覽	長: 尺2寸, 廣: 5寸 牢中旁寸	2	左右各2	玄纁, 혹은 紬	끈의길이 尺5-6寸, 3尺
國朝五禮儀	長: 尺3寸, 廣: 5寸	2	左右各2	玄纁 帛	
문정공 慎終錄				冒色大貢緞 紅貢緞	
충정공 慎終錄				黑貢緞 藍貢緞	
한산이씨 慎終錄				紫赤貢緞 藍貢緞	

출토품 1*	長: 22cm, 廣: 11.5cm 가운데 약간 잘록	2	左右各2	질은 갈색 貢緞 연한 갈색 貢緞	
출토품 2*	長: 22cm, 廣: 12.7cm 가운데 약간 잘록	2	左右各2	미색대화단	
출토품 3*	長: 23.5cm, 廣: 11cm 가운데 약간 잘록	1	없음	질은 갈색 공단	
喪具訂	長: 尺2寸, 廣: 5寸 窄中旁寸	1	左右各2	玄纁	
其他	長: 尺2寸, 廣: 5寸 죽통모양	1			萬斯大, 郝敬

\*안동김씨문묘에서 출토된 것으로《안동김씨발굴조사보고서,1989》에 의함

는 두 개인 것 보다 확실하다.

### 3. 設握法

設握法은 “握手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士喪禮〉에서 握手하는 절차를 보면 먼저 決을 설치하여 엄지손가락의 뿌리 부분에 씌워 지지하고 있다가 握手를 설치한 다음 팔을 연결한다<sup>22)</sup>.

決은 활을 쏠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 씌우는 것으로 飯舍할 때부터 死者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 뿌리 부분에 씌우고 곁에 있는 끈으로 왼팔과 연결하여 지지하고 있다가 襲의 마지막에 握手를 할 때 그 決의 끈을 취하여 팔에서 연결하여 묶는다.<sup>23)</sup>

始卒의 과정에서 屍身이 굳으면서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收屍를 하는 것처럼 팔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지손가락에 決을 설치하여 왼팔과 연결하여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決의 설치는 《朱子家禮》에는 없고 《喪禮備要》나 《四禮便覽》에도 없는 절차이다. 賈公彥이 “오른손은 決이 있고 왼손에는 決이 없다”<sup>24)</sup>고 하여 양손의 握手하는 방법을 달리 설명하고 있는데 《朱子家禮》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禮學者들은 決이 없는 왼손의 握手法을 받아들여 양손

에 적용함으로써 決의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茶山은 決의 설치는 飯舍부터라고 하였다. 따라서 自飯持之는 飯舍부터라고 보았다. 즉 飯舍를 할 때 아직 襲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손을 단속할 수가 없어서 決을 설치하여 양팔을 단속하였다가 襲을 하고 握手를 함으로써 팔을 연결한다고 한 것이다.

決을 설치하는 이유를 《家禮考證》에서는 “生時에 소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握手와 함께 묶는다<sup>25)</sup>”고 하였는데 襲時에 굳이 사용하는 것은 決이 그 과정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활쏘기가 일상생활이었던 당시에 決이 당시 삶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襲이 끝나기 전, 즉 목욕을 하고 襲衣를 입히고 나서 飯舍를 하기 전에 두손을 연결하기 위한 기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文과 武가 분리되고 文이 武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決의 상징성이 약해지면서 기능적인 역할만 남음으로써 決의 명칭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握手의 設置 方法은 握手가 몇 개이며 끈은 몇 개인가, 그리고 握手의 형태는 어떠한가 握手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를 근거로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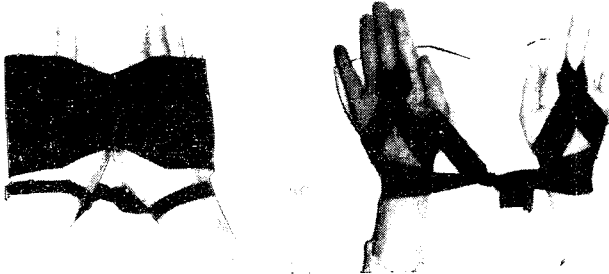
茶山の 設握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握手는 양옆이 넓고 가운데가 좁으며 흑적색과 열은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열은 붉은 색이 안으로 가게 하여 양단 넓은 곳으로 양손의 등을 덮는다. 그러면 열은 붉은 색이 손등에 닿게 되고 양쪽

넓은 부분에 손등이 있으므로 가운데 좁은 부분은 손과 손 사이의 간격이 된다(그림 2 참조).

兩端에 각각 끈이 하나씩 있어 그 끈이 각각 손바닥으로 해서 위를 따라 손가락 밖으로 나와(二脂와 三脂 사이로 나와) 가운데 손가락을 한번 감고(三指와 四脂사이를 따라서 한번 감아)팔에서 묶는다(팔목을 감아 각각 한번 돌려 감고 서로 묶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팔이 서로 연결된다<sup>26)</sup>.”

즉 茶山은 <士喪記>의 “令襄親府”의 “府”를 “손등”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손등에 안이 닿게 한다는 말은 握手으로써 손을 덮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握手



(그림 2) 茶山說에 의한 設法 모습(손등과 손바닥), 연구자 재현

의 목적이 양팔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握手의 가운데 좁은 부분만큼 즉 4寸의 간격을 두고 양손을 놓은 다음 그 위를 握手로 덮고 握手의 끈으로 각각 팔을 묶음으로써 양팔이 연결된다. 茶山의 握手하는 방법에서는 決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손을 같은 방법으로 묶는다.

그러나 鄭玄은 “握手의 끈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걸쳐 손등을 거쳐 決帶의 나머지와 연결한다<sup>27)</sup>”고 하였고 賈公彥은 “握手는 손을 싸는 것이다. 손등을 감으면 당연히 위가 중첩되는데 끈이 있어 그 끈 하나로 손을 감아 위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걸고 또 반대로 위를 감고 끈을 취하여 아래를 향해 結帶와 연결한다. 이것은 오른손을 말한다<sup>28)</sup>”고 하였다. 그리고 <士喪記>의 注에서는 “손에 決이 없는 것은 握手의 끈 하나로 먼저 손목을 한번 감고 다시 위로 부터 스스로 잡아 당겨 그 끈과 묶는다<sup>29)</sup>”고 하였

고 賈公彥은 “兩端에 각각 끈이 있어 먼저 하나로 팔을 한번 감고 또 하나로 가운데 손가락을 걸어 반대로 팔을 감은 것과 묶는다<sup>30)</sup>”고 하였다. <士喪禮>의 注는 決이 있는 경우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士喪記>의 注는 決이 없는 경우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賈公彥과 孔穎達등이 握手가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하나씩 있으며 오른손에는 끈이 하나이고 왼손에는 끈이 兩端에 하나씩 두 개가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즉 注에서는 握手가 몇 개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지 握手하는 방법을 근거로 후학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握手가 두 개라고 한 것은 <士喪禮>와 <士喪記>의 내용을 오른손과 왼손의 방법이 다르며 따라서 그것은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注와 疏의 내용을 握手가 두 개이며 두 개의 형태와 設法이 다르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注와 疏의 내용은 握手를 할 때 오른손에는 決이 있고 왼손에는 決이 없기 때문에 決이 있는 경우와 決이 없을 때의 묶는 방법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지 握手가 두 개가 있어서 오른손의 握手와 왼손의 握手의 끈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오른손에 握手가 따로 있다면 실제로 握手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의 握手에는 끈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끈이 없는 쪽은 고정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朱子の <家禮> 本註에는 握手는 손을 싸는 것이라고 하였을 뿐 握手의 갯수와 하는 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小註에서 兩端의 下角에 끈이 각각 있다고 하여 賈公彥의 疏를 따르고 있고 <喪禮備要>나 <四禮便覽>는 兩端의 하각에 끈이 있는 握手 2개를 쓰고 있다.

《喪禮備要》와 《四禮便覽》의 設握法<sup>31)</sup>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른손을 가운데 좁은 곳에 둔다. 下一端으로 손등을 가린다. 끈으로 팔을 한번 돌리고 다시 위로부터 잡아당긴다. 또 上一端으로 거둬하여 가린다. 끈으로 손안쪽을 향하여 팔을 감고 손등을 거쳐 위로 향한다. 無名指와 長指 사이로 해서 長指와 食指 사이로 나온다. 中指를 걸어서 끈을 아래를 향하게 한다. 새끼손가락 있는 팔목을 거쳐 다시 손안쪽을 향하여 잡아당긴 끈과 손목에서 묶는다. 왼손도 그와 같이 한다”

이처럼 한다면 먼저 握手로서 손을 감싼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처럼 끈으로 손가락 사이로 끈을 걸 수가 없다.

또 握手를 “竹籊”과 같은 형태라고 한 경우의 設握法을 보면 길이 尺2寸, 넓이 5寸의 비단을 죽통모양으로 만들어 양쪽으로 손을 넣어 손이 마주 잡히게 한다고 하였는데 그 경우 끈을 中指에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說은 〈士喪禮〉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것 같다.

設握法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設握의 목적과 방법이다.

茶山은 設握法의 목적이 양팔을 연결하여 서로 뒤틀리고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士喪禮〉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士喪禮〉와 〈士喪記〉의 注와 疏가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것을 각각 설명함으로써 후학자들이 오른손은 끈이 하나이고 왼손은 끈이 두 개인 것이며 손을 싸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沙溪에 의해 정설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Ⅲ. 結 論

朝鮮時代 中後期로 접어들어 《朱子家禮》가 정착되고 《朱子家禮》의 실천이 보편화되면서 禮에 대한 지침서는 점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다

르게 된다. 《四禮便覽》에서는 그 이전의 禮書에서 다루지 않았던 握手 끈의 길이가 한쪽은 尺五六寸, 다른 한쪽은 三尺이라고 길이 까지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設握法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이다.

그러나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되었을 뿐 《朱子家禮》를 근간으로 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茶山의 說은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朱子家禮》를 받아들여 모든 禮書는 《朱子家禮》에 충실하려 하였으나 茶山은 《朱子家禮》는 물론 〈士喪禮〉의 注와 疏에 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士喪禮〉를 재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설을 폈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握手說이다.

握手는 禮學者들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沙溪 이후 握手는 손을 싸기 위한 것으로 두 개이며 끈이 각각 두 개씩 달리고 가운데가 잘록한 형태로 정착되었는데 茶山은 〈士喪禮〉를 재검토하여 握手의 목적이 連繫에 있으며 그에 따라 한 개 握手說을 폈다.

握手는 襲의 마지막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써 신이 뒤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신의 끈으로 두발을 묶고 握手를 함으로써 두팔을 연결하여 묶는 것이다. 따라서 握手가 두 개일 필요가 없는데 〈士喪記〉의 注와 疏에 대해 決이 없는 손을 왼손으로 보고 왼손에 별도의 握手가 있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握手는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있게 된 것이다.

《朱子家禮》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禮書는 대부분 그 설을 따르고 있지만 鄭玄이 말한 손에 決이 없다고 한 것은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고 결이 없을 경우의 握手하는 방법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오른손에는 決이 있고 왼손에는 決이 없기 때문에 그 묶는 법에 차이가 있어 그 묶는 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握手는 하나이고 兩端에 끈이 있어 그 끈으로 팔을 묶음으로써 양팔이 연결되어 뒤틀리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握手法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역사의 시련속에서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여 문헌을 참고로 할 수 밖에 없어 握手의 형태는 문헌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設握法의 경우 글로써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그 방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 參考文獻

#### 원전류

- 《家禮考證》
- 《家禮輯覽》
- 《四禮便覽》
- 《常變通攷》
- 《喪禮備要》
- 《喪禮備要補》
- 《喪禮撮略條解》
- 《與猶堂全書》
- 《二先生禮說》
- 《疑禮問解》
- 《初終禮要覽》
- 《初終祭禮歌》
- 《丘氏儀節》
- 《書儀》
- 《說文解字》
- 《朱子家禮》
- 《儀禮經典通解》
- 《儀禮注疏》，文淵閣四庫全書
- 《儀禮集編》，文淵閣四庫全書

#### 단행본

- 김춘동, 《한국민속대관》 〈상례〉, 고려대 민속문화연구소, 1989
- 온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분묘 발굴조사보고서》, 1989
- 경상북도·영남대학교, 《경북예악지》, 경상북도 1989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예절편)》, 1987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우리의 전통예절》, 1994

#### 외국서

- 池田末利 譯註, 《儀禮》, 東海大學出版會, 1976

#### 학위논문

- 광명숙, 〈우리나라 壽衣문화와 제작법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문주, 〈습복식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산업대학원, 1994
-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송미경, 〈염습의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순남숙, 〈壽衣에 나타난 내세관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유관순, 〈우리나라 縗衣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 유권중, 〈다산예학연구 - 상의설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장동우, 〈다산예학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장미선, 〈상례복식과 습복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연구논문

- 백영자, 〈現行 壽衣 着衣法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제3권 제2호
- 성기희, 〈염습고〉, 관동대논문집, 1981
- 유권중, 〈우복의 예학사상〉 《우복 정경세선생 연구》, 우복선생기념사업회, 1996
- 이종선, 〈우리민족의 상례와 제례에 관한 연구〉, 국민대 논문집(인문과학편), 제9집, 1975
- 전영숙, 〈수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77

- 1) 《雜記》에 의하면 公의 襲에는 9稱, 大夫의 襲에는 5稱, 士의 襲에는 3稱을 쓴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3稱이라고 한 것은 본고의 주요 연구자료인 茶山の 〈喪儀節要〉에 의한 것이다.
- 2) 이 절차는 茶山の 〈喪儀節要〉를 따른 것이다.
- 3) 《與猶堂全書》제3집, 〈喪儀節要〉권1, 襲舍, 握手…注疏作兩枚設於兩手今正之通作一枚
- 4) 《喪禮四箋》은 喪儀匡, 喪具訂, 上服商, 喪期別로 되어 있다. 茶山 喪儀說은 古禮의 회복을 추구하는 점이 특색이다. 그의 古禮를 추구하는 禮學의 입장은 중국 禮學의 전통적인 基底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단한 독자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茶山은 당시 우리의 禮學이 朱子의 家禮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朱子의 家禮는 鄭玄이나 賈公彥, 孔穎達의 說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鄭玄이나 賈公彥, 孔穎達등의 오류로 인한 誤謬가 있음을 지적하고 직접 經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古禮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 5) 《儀禮注疏》권35, 〈士喪禮〉, 握手…疏名爲握此以其在



手故言握手不謂以手握之

- 6) 《與猶堂全書》제3집, 〈喪禮四箋〉권6, 喪具訂1, 握手, 開元禮謂之手衣
- 7) 上揭書, 郝敬曰纒帛如筥簞尸兩手
- 8) 上揭書, 萬斯大曰握手之制圓如竹筥手從兩端而入兩手孛交疊處須寬大
- 9) 《朱子家禮》, 喪禮, 陳襲衣, 握手用帛長尺2寸廣5寸袞手者  
《喪禮備要》, 陳襲衣, …充之以絮兩端下角各有絮所以袞手者
- 10) 《與猶堂全書》제3집, 〈喪禮四箋〉권6, 喪具訂1, 握手, 劉熙釋名曰握以物著尸手中使握之
- 11) 上揭書, 握手之設所以連綴兩手不相離戾也
- 12) 上揭書, 篇案握或作纒又與幄通
- 13) 上揭書, 第韻云於侯切喪用束手者
- 14) 上揭書, 周禮巾車云覆車有握註有幄則無蓋矣
- 15) 《儀禮注疏》권35, 〈士喪禮〉, 握手用玄纁裏長尺二寸廣五寸牢中旁寸著組絮
- 16) 上揭書, 注牢讀爲樓樓爲削約握之中央以安手也
- 17) 上揭書, 符笄…疏綴中者兩頭闊中央狹也
- 18) 《與猶堂全書》제3집, 〈喪儀節要〉권1, 襲含, 沿邊削一寸其犯亦一寸其斜犯之其所削之片爲三角 形
- 19) 유관순,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1, 재인용
- 20) 《안동김씨 분묘발굴조사보고서》, 온양민속박물관, 1989, p.280
- 21) 《四禮便覽》, 喪禮, 襲, 握手, 絮長一端尺五六寸, 四禮便覽이전에는 끈의 길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 22) 《儀禮注疏》권36, 〈士喪禮〉, 握手, 設決麗于孛自飯持

之說于乃連擊

- 23) 《與猶堂全書》제3집, 〈喪禮四箋〉권6, 喪具訂1, 握手, 自飯持之謂自飯含時已設決持之決有組 以連左擊…既襲既設握乃取得決之組連于擊
- 24) 《儀禮注疏》권36, 〈士喪禮〉, 握手, 疏云握手有決今言與決同結明是右手也. 手無決者左手也
- 25) 《家禮考證》권6, 喪禮, 握手, 按決者生時所用故與握同結
- 26) 《與猶堂全書》제3집, 〈喪禮四箋〉권6, 喪具訂1, 握手, 握手之形兩頭廣而中央削蓋以兩頭之廣者當兩手之背而中央之削者當兩手之間虛處又以兩頭之系各從手底上出指外繞中指一帀而上結於腕茲所謂系鉤中指結于腕也茲所謂設握乃連擊也
- 27) 《儀禮注疏》권36, 〈士喪禮〉, 握手, 注設握者以繫鉤中指由手表與決帶之餘連結之
- 28) 上揭書, 疏握手袞手繞于手表宜於上掩者屬以繫乃以繫繞手一帀而上鉤中指又反而上繞取繫 鄉下與決帶連結之…是右手也
- 29) 上揭書, 注手無決者以握繫一端繞擊還從上自貫反與其一端決之
- 30) 上揭書, 疏賈曰兩端各有絮先以一端繞擊一帀又以一端鉤中指反與繞擊者結之
- 32) 《四禮便覽》, 喪禮, 襲, 設握手, 先以右手置於樓中, 用下一端掩手背, 以綦縵繞擊一帀, 還從上自貫, 又用上一端重掩之, 以綦縵向手裏, 繞擊由手表向上, 納于無名指長指之間, 出于長指食指之間, 以鉤中指, 取繫向下, 由小指後擊際, 復向手裏, 與自貫者結於掌後節中,(即擊擊之際)於左手亦